

# Decomposition Analysis on the Changes in Job Search Channels of the Elderly

**Myungho Paik\***

Hanyang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job search channels of the elderly over the past decade, extracting the sample of the elderly aged 55-79 with job search experience from the 2014 and 2024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Elderly Supplements. Among the various job search channels, the use of employment centers, public or private job placement agencies or mass media such as newspapers, magazines and the internet increases, while the use of direct inquiries to businesses or private networks such as friends and relatives decreases. The results of the multinomial logit analysis of job search channels show that in both years, the use of public job placement agencies increases with age and that of mass media decreases. Education is also an important factor, and it is confirmed that the use of employment centers or mass media is prevalent among the elderly with high school or college degrees. It is notable that the use of public job placement agencies or mass media increases among women over time. The results of decomposition analysis by each job search channel show that the effect explained by the changes in the averag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such as age and education, is less than half of the total changes in most channel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changes in the labor market environment over the past decade are also crucial along with those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 Keywords

Elderly, Job Search Channels, Multinomial Logit Model, Decomposition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y Studies and Hanyang Intitute for Population and Policy Research, Hanyang University. E-mail: mpaik@hanyang.ac.kr

# 고령층 구직경로 변화의 요인분해

백명호\*

한양대학교

## 요약

이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고령층의 구직경로 선택의 변화를 분석한다. 2014년과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원자료의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55-79세 표본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여러 구직경로 중 고용센터, 공공 혹은 민간 취업알선기관을 이용하거나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한 구직활동은 증가하는 반면 사업체에 직접 문의하거나 친구, 친지 등 사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직경로에 대한 다항로짓모형의 추정 결과 두 시점 모두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공공 취업알선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대중매체의 이용은 감소한다. 학력수준도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고졸과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 고령층에서 고용센터와 대중매체가 구직활동에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성의 경우 두 시점 사이에 변화가 크며 경제활동 참여 증가 경향이 반영되어 공공 취업알선기관을 이용하거나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구직경로 선택의 변화를 요인분해하여 살펴보면 연령, 학력수준 등 고령층의 평균적인 특성의 변화에 설명되는 특성효과의 크기가 대부분의 구직경로에서 총 변화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계수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10여년 동안 노동시장 참여 고령층의 특성변화와 함께 두 시점에서 동일한 특성을 갖더라도 다른 구직경로를 선택하게 되는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가 수반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 주제어

고령층, 구직경로, 다항로짓모형, 요인분해

---

\*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부교수. [mpaik@hanyang.ac.kr](mailto:mpaik@hanyang.ac.kr).

## I. 서론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고령화 시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수십여년 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건강보험 및 연금제도 등 은퇴 후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었으나 현재의 고령층은 경제적인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22년 기준 39.7%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sup>1)</sup> 이렇듯 소득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필요와 함께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은퇴 연령대에도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지난 10여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5-79세 인구의 고용률이 2014년 54% 정도에서 2024년에는 59%에 이르고 있다.<sup>2)</sup> 경제적 필요, 일하는 즐거움, 건강 유지 등 다양한 이유로 은퇴 연령을 넘어서는 취업자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고 미취업자들의 구직활동도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24). 고령층의 구직활동 증가와 함께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지난 시기 정부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제공, 공공기관을 통한 취업교육 등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김준수, 김신열&이주은, 2021; 탕윤, 허형조&이재원, 2022). 이 연구에서는 고령층의 구직경로 선택요인과 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고령층의 구직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령층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생성되는 일자리의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령층의 구직경로는 다른 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또한, 현재의 고령층의 학력수준은 젊은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연령대에 따라 정보이용에 있어 디지털격차(digital divide)가 존재할 수 있다. 최근 젊은 세대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

1) OECD 데이터 웹사이트 참조(<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poverty-rate.html>).

2)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SNS 등이 다양한 정보 교환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자리에 대한 정보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정부에서도 직접 ‘고용24’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sup>3)</sup>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보면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디지털정보에의 접근은 2023년 기준으로 거의 모든 가구에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컴퓨터 이용 능력 등의 역량과 활용 지표는 젊은 세대와 아직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이러한 격차는 고령층의 구직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구직경로는 공공 및 민간의 취업알선기관을 이용하거나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채용정보를 취득하거나 직접 사업체에 문의하거나 친구, 친지 등의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들이 활용되고 있다. 고령층 일자리의 특성이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다르고 보편적으로 정보의 취득경로에서도 차이를 보인다면 고령층의 구직경로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고령층의 일자리 정보 취득경로 선택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지난 10년 간 구직경로에 나타난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 논문의 II장에서는 구직경로 선택의 영향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연구에 활용한 자료와 변수들에 대해 설명한 후 실증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그리고, IV장에서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한 후 V장에서 결론과 정책적 함의 및 추가적인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II. 선행연구의 검토

### 1. 구직경로에 따른 구직활동의 성과

국내외의 여러 연구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 혹은 대졸자의 구직활동과 일자리 매치의 질에 관심을 두고 취업경로에 따른 성과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Holzer, 1988; Mortensen & Vishwanath, 1994; 강순희, 2018; 이혜영&

3) 고용24 웹사이트 주소는 <https://www.work24.go.kr>이다.

강순희, 2017; 오성욱, 2017).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자의 이직활동에 주목하여 미취업자의 구직활동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특성들에 대한 연구들도 오래 전부터 수행되어 왔다(Holzer, 1987; Blau & Robins, 1990).

일반적으로 취업자 및 미취업자의 구직경로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은 어떠한 구직경로가 구직활동의 성공적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주요한 관심을 두고 있다. 즉, 취업 확률에 있어서 구직경로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취업 후의 임금수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새로운 일자리는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일부 연구에서는 동문 등의 사회적 네트워크 혹은 친구, 친지 등의 사적인 친분을 통한 구직활동이 취업에 보다 유리하며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의 임금수준도 높다는 결과들을 보고한다(Holzer, 1988; Mortensen & Vishwanath, 1994). 구직경로에 따라 취업 성공 여부와 취업 후 임금수준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구직경로의 선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대중화로 일자리 정보의 취득 방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구직경로에 따라 취업 후 임금수준 및 일자리 지속기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Kuhn & Skuterud, 2000; Kuhn & Mansour, 2014; Paik, 2020). 인터넷의 영향이 구직활동의 성과에 긍정적이기에 대해서는 분석 시기와 대상 및 성과 측정의 지표에 따라 상이한 결과들이 나타난다. 인터넷을 통한 구직은 일반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일자리 지원 횟수를 늘림으로써 구직활동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나 사회적 및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찾게 되는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 2. 구직경로의 결정요인

구직경로에 따른 성과의 차이는 구직경로의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된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은 얼마나 용이하게 취업에 이르게 되는지, 임금수준 등을 기준으로 좋은 일자리인지, 구직활동에 따른 비용은 어떠한지 등의 기준으로 특정 구직경로를 선택하게 되며 여러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기도 한다. 특정 구직경로를 활용한 구직활동이 취업으로 이어질 확률은 구직자의 특

성 뿐 아니라 정보 유통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수준, 정부의 정책 개입 및 노동시장의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구직경로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연구대상, 지역 및 시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구직활동을 하는 개인들은 각자에게 적합한 경로를 선택하게 되며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 구직경로에 있어서의 연령, 학력 등 개인들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구직자들의 특성에 따른 구직경로의 선택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일례로 Mussida & Zanin(2020)은 이탈리아 실업자의 구직경로에 대한 연구에서 학력수준이 높은 고숙련 직업의 실업자는 인터넷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은 반면, 저숙련 직업과 제조업 경험이 있는 구직자는 판매업이나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취업알선기관을 고려할 확률이 더 높다고 분석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전의 직업경험은 구직경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구직자의 직업탐색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병훈(2002)은 학력이 구직경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고령층의 구직경로에 대한 국내의 실증분석 연구는 많지 않다. 200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를 분석한 서미경&김미혜(2012)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구직경로는 개인적 접촉이 많고 공공 취업알선기관의 이용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인터넷 등 대중매체는 도시 거주자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한다. 최근 기술발전과 생활방식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구직활동에서도 많은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2014년과 2024년의 구직경로 선택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학력, 연령, 도시 등의 영향이 어떠한지 검토한 후 두 시점 사이에 나타나는 고령층 구직경로의 변화를 요인분해를 통해 분석한다.

### Ⅲ. 연구 자료와 방법

#### 1. 연구 자료와 표본의 선정

이 연구는 2014년과 2024년 5월에 수집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청에서 국민들의 경제활동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매월 3만여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자료이며 매년 5월에는 55-79세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문항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의 원자료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icrodata Integrated Service, MDIS)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sup>4)</sup>

분석 표본의 선정을 위해 우선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의 대상이 되는 55-79세의 고령층으로 한정한다. 또한, 이 연구가 구직경로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므로 조사에서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이 있고 구직경로에 응답한 관측치를 대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2014년 2,998개와 2024년 4,962개의 표본이 이에 해당된다. 이 표본에서 구직경로에 대한 응답으로 ‘자영업 준비’ 혹은 ‘기타’를 선택한 일부 관측치를 제외하여 임금근로 목적의 구직경로로 분석 대상을 제한하면 최종적으로 2014년 2,869개와 2024년 4,850개의 분석 표본을 얻을 수 있다.

#### 2. 주요 변수의 정의와 설명

##### 1) 구직경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경제활동상태의 분류를 위해 기본적으로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난 4주간의 구직여부 등의 질문을 통해 통계 목적에 부합하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고 있다. 이 경우 구직경로 등의 정보는 실업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고령층의 경우 조사 직전의 시기에는 구직 경험이 없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더라도 적합한 일자리가 있는 경우 일할 의지가 있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층부가조사에

4) 웹사이트 주소는 <https://mdis.kostat.go.kr>이다.

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구직경험과 구직경로 등의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실업자 외에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미취업자들의 구직활동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조사 시점에 취업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지난 1년간의 구직활동에 대한 동일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고령층부가조사에서는 2024년 조사표를 기준으로 ‘지난 1년 간 주로 어떤 경로로 일자리를 구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구직경로의 선택지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고령자인재은행 등을 통해’, ‘기타 공공 취업알선기관(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등)을 통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을 통해’,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업체 문의 또는 방문’, ‘친구, 친지 소개 부탁’, ‘자영업 준비’, ‘기타’의 8가지 선택지를 제시한다. 분석 표본에서 ‘자영업 준비’ 혹은 ‘기타’의 응답자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6가지 임금근로 관련 구직경로의 선택을 범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더미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 2)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속성

우선 분석 표본이 55-79세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표본의 평균 연령은 65세 전후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5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를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의 다섯 집단으로 구분하여 활용한다. 아울러 성별에서 여성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와 현재 혼인 중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를 생성하여 활용한다. 유배우자 변수의 경우 미혼 이거나 이혼 및 사별의 경우를 0으로 하는 변수에 해당된다.

노동시장 분석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학력수준과 관련해서 고령층의 학력수준이 전체 인구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여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초대졸 이상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거주지역에 대한 정보 대신에 거주지역이 도시화된 지역을 의미하는 ‘동’에 해당하는지 혹은 ‘읍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덜 진행된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를 1로 하는 더미 변수를 생성하여 지역적 차이를 통제한다. 아울러 가구 특성으로 농가인지 비농가인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므로 이를 더미 변수로 활용한다.

고령층의 상당수가 다양한 연금을 수령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

금, 군인연금, 기초연금 등의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자료에서는 이들 각 연금의 수령여부에 대한 구분 없이 전체적인 연금수령 여부와 월평균 수령액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연금수령 여부와 함께 월평균 수령액의 자연로그 값을 변수로 활용한다. 연금을 수령하지 않아 수령액이 0인 경우를 고려하여 자료에서 제공되는 수령액에 1을 더하여 자연로그를 취한다.

### 3. 연구 방법

#### 1) 구직경로의 결정 요인

우선적으로 2014년과 2024년 각 연도의 표본을 활용하여 구직경로의 선택과 개인들의 속성의 관계를 분석한다. 표본에서 구직경로 변수는 각 개인이 임금근로와 관련된 6가지 구직경로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6가지 범주로 구분되는 구직경로 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한 다항선택모형의 구조를 갖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여러 설명변수들과의 관계를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추정하여 분석한다(Schmidt & Strauss, 1975; Greene, 1997). 만약  $K$ 개의 범주로 구분된 종속변수가 있고  $k = K$ 일 때를 기본 범주로 하는 경우의 회귀식은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P_{ki}$ 는 종속변수  $y_i = k$ , 즉 개인  $i$ 가 범주  $k$ 를 선택하는 확률이며,  $X_i$ 와  $\beta_k$ 는 각각 설명변수와 이에 상응하는 회귀계수의 벡터이다.

$$\ln\left(\frac{P_{ki}}{P_{Ki}}\right) = X_i\beta_k \text{ for } k = 1, \dots, K-1 \quad (1)$$

이와 같이 다항로짓모형에서는 다수의 범주 중 하나를 기본 범주로 하여 그 범주에 해당될 확률과 다른 범주에 속하는 확률의 상대비의 자연로그 값을 종속변수로 활용하므로 추정된 회귀계수를 지수함수를 통해 변환하면 상대위험도(relative risk ratio)를 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구직경로 중 가장 전통

적인 방식으로 여겨지는 사적 네트워크의 이용, 즉 문항 선택지의 ‘친구, 친지 소개 부탁’의 경로를 기본 범주로 활용한다. 각 연도의 구직경로에 대한 다항 로짓모형 추정을 통해 개인들의 속성이 미치는 영향이 2014년과 2024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 2) 선형확률모형을 활용한 요인분해

2014년과 2024년 두 시점 사이의 구직경로 선택의 차이는 한편으로 분석 집단의 연령, 학력수준, 성별 구성 등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변화하여 나타날 수 있다. 즉,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와 함께 고령층 연령대의 분포가 변하고 학력수준이 상승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구직경험자의 성별 구성이 변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러한 특성의 변화에 의해 구직경로의 선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동일한 특성이 구직경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변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즉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되는 설명변수의 회귀계수 값이 두 시점 사이에 변화를 보이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종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linder-Oaxaca 분해법을 적용한다. 이 요인분해법은 Blinder(1973)와 Oaxaca(1973)의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원래 동일 시점에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를 학력, 경험 등 특성의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차이’와 회귀계수로 추정되는 특정 변수의 임금효과 차이인 ‘설명되지 않는 차이(차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으로 전자를 특성효과 후자를 계수효과로 부를 수 있다. 이 분해법을 두 시점 사이의 종속변수의 변화에 적용하여 특성 변화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과 회귀계수의 변화로 초래되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Oaxaca & Ransom, 1994; Hamermesh, 2002). 여기서는 식 (2)와 같이 각 구직경로별 터미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선형확률모형을 추정 후 Blinder-Oaxaca 분해법을 통해 특성효과와 계수효과를 살펴본다.

$$y_i = X_i\beta + u_i \quad (2)$$

이 식에서  $y_i$ 는 특정 구직경로를 선택하는 경우를 1로 하는 더미변수이고  $X_i$ 와  $\beta$ 는 설명변수와 회귀계수의 벡터이며  $u_i$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각 연도의 자료로 회귀분석을 실행한 후 요인분해를 식 (3)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이 식에서 우변의 첫 항이 특성효과의 크기이고 둘째 항이 계수효과의 크기이다.

$$\begin{aligned} \bar{y}^{-2024} - \bar{y}^{-2014} &= (\bar{X}^{-2024} - \bar{X}^{-2014})\hat{\beta}^* \\ &+ [\bar{X}^{-2024}(\hat{\beta}^{2024} - \hat{\beta}^*) + \bar{X}^{-2014}(\hat{\beta}^* - \hat{\beta}^{2014})] \end{aligned} \quad (3)$$

원래의 분해법에 따르면 두 시점 중 한 시점을 기준으로 요인분해를 실행하게 되나 이 경우 어느 시점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결과에 차이를 보인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Oaxaca and Ransom(1994)은 통합표본을 추정한 회귀계수  $\hat{\beta}^*$ 을 활용하여 식 (3)과 같이 계수효과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추정하는 수정된 분해법을 제시하며 여기서는 이를 적용하여 분석한다.

## IV. 분석 결과

### 1. 기초통계량

<표1>은 2014년과 2024년 표본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모든 통계량은 자료에서 제공하는 가중값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우선 구직경로를 살펴보면 일자리를 찾는 경로가 다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고용자인재은행 등을 통해’의 응답은 2014년 5.4%에서 2024년 9.0%로 3.6% 포인트 증가하고 있고, ‘기타 공공 취업알선기관(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등)을 통해’의 응답도 21.9%에서 28.4%로 6.5% 포인트 증가하고 있다. ‘민간 취업알선기관을 통해’의 응답과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의 응답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각각 1.2% 포인트와 2.6% 포인트 증가로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다. 이에 반해 전통적인 구직경로로 볼 수 있는 ‘사업체 문의 또는 방문’의 응답과 ‘친구, 친지 소개 부탁’의 응답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사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친구, 친지 소개 부탁’의 응답은 42.2%에서 31.7%로 10.6% 포인트나 줄어들고 있고, ‘사업체 문의 또는 방문’의 응답도 3.3% 포인트 감소하고 있다.<sup>5)</sup>

〈표1. 기초통계량〉

변수	2014년		2024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구직경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0.054	0.225	0.090	0.286
기타 공공 취업알선기관	0.219	0.414	0.284	0.451
민간 취업알선기관	0.103	0.304	0.115	0.319
신문, 잡지, 인터넷 등	0.081	0.273	0.107	0.309
사업체 문의 또는 방문	0.120	0.326	0.088	0.283
친구, 친지 소개 부탁	0.422	0.494	0.317	0.465
설명변수				
55~59세	0.355	0.479	0.258	0.438
60~64세	0.260	0.439	0.283	0.450
65~69세	0.165	0.371	0.212	0.409
70~74세	0.137	0.344	0.139	0.346
75~79세	0.084	0.277	0.108	0.311
여성	0.480	0.500	0.507	0.500
유배우자	0.710	0.454	0.678	0.467
초졸 이하	0.398	0.489	0.209	0.406
중졸	0.217	0.412	0.183	0.386
고졸	0.285	0.452	0.400	0.490
초대졸 이상	0.101	0.301	0.209	0.407

5) 차이를 계산한 후 반올림을 적용하여 끝자리 숫자가 다를 수 있다.

읍면부	0.227	0.419	0.203	0.402
농가	0.076	0.265	0.063	0.244
연금수령	0.476	0.499	0.543	0.498
연금/월	20.93	49.27	43.19	70.43
ln(연금+1)	1.531	1.745	2.216	2.102
관측치	2,869		4,850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주요 설명변수들 중 연령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로 인한 연령 분포의 변화가 분석 표본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직경험자 중 60대, 70대의 비율이 2024년에 확연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비율도 48.0%에서 50.7%로 늘어나고 있으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수준의 향상이 반영되어 초졸 이하의 비율은 18.9% 포인트 감소하는 반면 고졸은 11.5% 포인트, 초대졸 이상의 비율은 10.8% 포인트 증가하고 있다. 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집중으로 읍면부 거주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농가의 비율도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연금수령액 역시 커지고 있다.

이렇듯 2014년 이후 10년 동안 고령층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에 여러 변화가 관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구직경로 선택에서의 변화를 일부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연도 표본의 설명변수들의 평균값은 아래에서 요인분해 분석에서 활용된다.

## 2. 구직경로의 결정 요인

### 1) 2014년의 구직경로 선택

<표2>는 2014년 표본을 이용하여 구직경로의 선택에 대한 다항로짓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가장 선택 빈도가 큰 ‘친구, 친지 소개 부탁’을 기본 경로로 하여 각 구직경로의 상대적 선택 확률이 어떤 특성에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표에서는 추정된 각 설명변수의 회귀계수와 함께 로버스트 표준오차를 보고하며 \*과 \*\* 표식은 각각 유의수준 1%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한다.

우선 연령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특징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타 공공 취업알선기관을 통해’의 응답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 추정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기본 경로 대비 상대위험도를 구해보면 준거집단인 55-59세 연령대에 비해 60-64세에서는 약 1.9배, 65-69세는 4.3배, 70-74세는 8.8배, 그리고 75-79세는 18.1배 높게 나타난다.<sup>6)</sup> 이는 2004년부터 시행된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찾으려는 고령층 구직활동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 취업알선기관을 통해’의 응답의 경우 은퇴 직후 연령대인 65-69세에서는 유의한 양의 효과가 확인되나 최고령층인 75-79세의 연령대에서는 음의 회귀계수가 유의하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구직활동을 의미하는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의 응답의 경우도 70-74세의 고령층에서 유의한 음의 효과가 확인된다.

여성 고령층은 남성에 비해 기본 경로 대비 ‘기타 공공 취업알선기관을 통해’의 응답이 1.5배 높으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을 통해’와 ‘사업체 문의 또는 방문’의 응답은 유의하게 낮다. 현재 배우자가 있는지의 여부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는 기본 경로 대비 두 가지 구직경로 선택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고령자인재은행 등을 통해’의 응답은 준거집단인 초졸 이하에 비해 고졸과 초대졸 이상에서 각각 1.7배와 3.6배 높다. 또한,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의 응답의 경우도 유사하게 1.8배와 2.9배 높게 확인된다.

읍면부와 농가의 고령층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고령자인재은행 등을 통해’의 응답이 유의하게 낮으며 농가에서는 ‘민간 취업알선기관을 통해’의 응답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금이 높을수록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공공 취업알선기관이나 대중매체를 활용한 구직이 많으며 민간 취업알선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적다.

6) 모형에서 추정된 회귀계수가  $\hat{\beta}$ 인 경우 상대위험도는  $e^{\hat{\beta}}$ 으로 계산된다.

〈표2. 고령층 구직경로의 다항로지모형 추정: 2014년〉

설명변수	기본 경로: 친구, 친지 소개 부탁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기타 공공취업 알선기관	민간 취업 알선기관	신문 잡지 인터넷	사업체 문의 방문
60~64세	-0.008 (0.284)	0.629** (0.213)	0.293 (0.208)	0.163 (0.230)	0.155 (0.177)
65~69세	-0.200 (0.337)	1.450** (0.219)	0.624* (0.255)	-0.467 (0.337)	0.392 (0.222)
70~74세	0.364 (0.330)	2.179** (0.226)	-0.007 (0.335)	-1.204** (0.464)	-0.381 (0.288)
75~79세	0.343 (0.477)	2.894** (0.259)	-2.058** (0.664)	-1.930 (1.035)	0.016 (0.374)
여성	0.172 (0.228)	0.399** (0.143)	-0.341* (0.170)	0.300 (0.205)	-0.315* (0.153)
유배우자	0.139 (0.251)	0.107 (0.139)	0.302 (0.204)	0.163 (0.225)	0.232 (0.172)
중졸	0.253 (0.299)	-0.107 (0.164)	-0.300 (0.217)	0.067 (0.271)	0.007 (0.186)
고졸	0.556* (0.277)	-0.034 (0.176)	-0.129 (0.206)	0.560* (0.247)	0.033 (0.187)
초대졸+	1.287** (0.357)	0.033 (0.276)	-0.521 (0.360)	1.058** (0.312)	0.443 (0.256)
읍면부	-0.981** (0.312)	0.262 (0.134)	-0.291 (0.184)	-0.247 (0.224)	0.015 (0.160)
농가	-1.324* (0.550)	-0.226 (0.192)	-0.582* (0.297)	-0.486 (0.350)	0.087 (0.225)
ln(연급)	0.162* (0.066)	0.086* (0.043)	-0.143* (0.059)	0.168** (0.060)	-0.045 (0.047)
상수항	-2.775** (0.348)	-2.354** (0.269)	-1.242** (0.258)	-2.307** (0.329)	-1.382** (0.245)
관측치	2,869	2,869	2,869	2,869	2,869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 2) 2024년의 구직경로 선택

2024년 표본을 활용하여 구직경로 선택의 다항로짓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3>에 보고한다. 2014년과 유사하게 고령층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기타 공공 취업알선기관을 통해’의 응답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준거 집단에 비해 65-69세는 약 1.6배, 70-74세는 5.0배, 그리고 75-79세는 14.2배 높게 나타난다. 이는 지역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공공기관 등의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2024년에도 고령층의 주된 일자리 취득 경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에 따른 정보격차를 반영하듯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구직활동인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의 응답은 55-59세에 비해 높은 연령대에서 유의하게 낮아진다. 특히 65-69세와 70-74세의 기본 경로 대비 상대위험도는 각각 0.48과 0.44로 절반 이하로 내려간다.

여성의 구직경로 선택에서는 2014년과 비교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직접적인 통로로 볼 수 있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고령자인재은행 등을 통해’의 응답과 ‘기타 공공 취업알선기관을 통해’의 응답의 기본 경로 대비 비율이 남성에 비해 각각 1.8배와 2.7배 높은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또한,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의 응답도 1.9배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고령층 여성들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와 구직활동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배우가 변수의 효과도 이전과 달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고령자인재은행 등을 통해’,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업체 문의 또는 방문’의 응답에서 회귀계수가 양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는 2014년과 유사하다. 기본 경로 대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고령자인재은행 등을 통해’의 응답이 고졸과 초대졸 이상에서 각각 1.9배와 2.7배 높으며,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의 응답도 2.0배와 4.0배 높게 나타난다. 추가적으로 초대졸 이상에서는 ‘민간 취업알선기관을 통해’의 응답과 ‘사업체 문의 또는 방문’의 응답의 상대위험도가 모두 약 1.7배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표3. 고령층 구직경로의 다항로짓모형 추정: 2024년〉

설명변수	기본 경로: 친구, 친지 소개 부탁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기타 공공취업 알선기관	민간 취업 알선기관	신문 잡지 인터넷	사업체 문의 방문
60~64세	-0.278 (0.181)	-0.124 (0.182)	-0.379* (0.162)	-0.540** (0.167)	-0.032 (0.178)
65~69세	-0.409 (0.224)	0.485* (0.209)	-0.254 (0.226)	-0.738** (0.227)	0.005 (0.239)
70~74세	-0.327 (0.286)	1.609** (0.220)	-0.283 (0.271)	-0.824* (0.320)	-0.306 (0.282)
75~79세	0.234 (0.353)	2.654** (0.250)	0.175 (0.328)	-0.732 (0.483)	-0.236 (0.451)
여성	0.592** (0.139)	0.982** (0.104)	0.223 (0.124)	0.637** (0.133)	0.093 (0.137)
유배우자	0.449** (0.152)	0.103 (0.106)	0.017 (0.133)	0.290* (0.143)	0.308* (0.152)
중졸	-0.078 (0.257)	-0.202 (0.134)	0.148 (0.214)	0.161 (0.274)	-0.105 (0.224)
고졸	0.641** (0.214)	-0.014 (0.136)	0.210 (0.210)	0.672** (0.245)	0.029 (0.205)
초대졸+	1.007** (0.243)	0.172 (0.174)	0.521* (0.238)	1.383** (0.268)	0.506* (0.232)
읍면부	-0.385* (0.171)	0.101 (0.114)	-0.127 (0.157)	-0.241 (0.169)	0.192 (0.157)
농가	-0.156 (0.307)	-0.093 (0.168)	-0.492 (0.291)	-1.463** (0.376)	-0.506 (0.299)
ln(연급)	0.131** (0.038)	0.214** (0.035)	-0.037 (0.040)	0.068 (0.039)	0.030 (0.040)
상수항	-2.363** (0.272)	-2.008** (0.213)	-1.045** (0.247)	-1.918** (0.300)	-1.671** (0.257)
관측치	4,850	4,850	4,850	4,850	4,850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읍면부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고령자인재은행 등을 통해’의 응답의 유의하게 낮으며 농가에서는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의 응답이 낮게 나타난다. 연금수령액이 증가할수록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고령자인재은행 등을 통해’의 응답과 ‘기타 공공 취업알선기관을 통해’의 응답에서 양의 관계가 유의하다.

### 3. 구직경로 변화의 요인분해

#### 1) 사적 구직경로: 친구, 친지 부탁 소개

앞서 연구방법 논의에서 다룬 것처럼 2014년과 2024년 사이에 나타나는 구직경로 선택에서의 변화를 Blinder-Oaxaca 분해법을 적용하여 연령, 학력수준 등 고령층의 평균적인 특성의 변화에 기인하는 특성효과와 설명변수들의 회귀계수의 변화에 의해 초래되는 계수효과로 나누어 살펴본다. 요인분해에는 각 구직경로의 선택을 1로 하는 더미변수를 정의한 후 선형확률모형의 추정 결과를 활용한다.

우선 고령층에 의해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사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구직활동, 즉 ‘친구, 친지 부탁 소개’의 선택을 종속변수로 활용한 결과를 <표 4>와 <표 5>에 제시한다. 이 구직경로의 선택은 <표 4>에서 보고되는 것처럼 2014년 42.2%에서 2024년 31.7%로 10.6% 포인트 줄어들고 있으며, 이 변화를 특성효과에 의해 3.6%포인트 감소하고 계수효과에 의해 6.9%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고령층의 평균적인 특성의 변화가 전체 변화의 34%(=3.6/10.6) 정도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 사적 구직경로(친구, 친지 부탁 소개) 선택의 변화 요인분해〉

	요인분해 결과 요약: 2014년 vs.2024년 (종속변수: 친구, 친지 소개 부탁=1)				
	P2024년	P2014년	변화	특성효과	계수효과
추정값	0.317**	0.422**	-0.106**	-0.036**	-0.069**
robust se	(0.008)	(0.010)	(0.013)	(0.005)	(0.013)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표5. 사적 구직경로 선택의 변화 변수별 요인분해〉

	선형확률모형 종속변수: 친구, 친지 소개 부탁=1			변수별 요인분해 2014년 vs.2024년	
	2014년	2024년	통합표본	특성효과	계수효과
	(1)	(2)	(3)	(4)	(5)
합계				-0.036** (0.005)	-0.069** (0.013)
60~64세	-0.064* (0.030)	0.073** (0.025)	0.013 (0.019)	0.000 (0.000)	0.037** (0.010)
65~69세	-0.124** (0.036)	0.037 (0.031)	-0.035 (0.023)	-0.001 (0.001)	0.029** (0.009)
70~74세	-0.178** (0.038)	-0.088** (0.033)	-0.138** (0.025)	-0.000 (0.001)	0.012 (0.007)
75~79세	-0.291** (0.041)	-0.210** (0.032)	-0.267** (0.025)	-0.006** (0.002)	0.008 (0.005)
여성	-0.013 (0.023)	-0.122** (0.016)	-0.091** (0.013)	-0.002* (0.001)	-0.054** (0.013)
유배우자	-0.036 (0.025)	-0.038* (0.017)	-0.036* (0.014)	0.001* (0.001)	-0.002 (0.020)
중졸	0.027 (0.029)	0.027 (0.024)	0.019 (0.018)	-0.001 (0.001)	0.000 (0.007)
고졸	-0.020 (0.029)	-0.031 (0.023)	-0.051** (0.017)	-0.003 (0.002)	-0.003 (0.012)
초대졸+	-0.091* (0.042)	-0.119** (0.027)	-0.141** (0.022)	-0.012** (0.003)	-0.003 (0.007)
읍면부	0.008 (0.024)	0.007 (0.019)	0.007 (0.015)	-0.000 (0.000)	-0.000 (0.006)
농가	0.059 (0.035)	0.059* (0.030)	0.060** (0.023)	-0.001 (0.000)	-0.000 (0.003)
ln(연급)	-0.009 (0.008)	-0.020** (0.005)	-0.018** (0.004)	-0.011** (0.003)	-0.021 (0.016)
상수항	0.556**	0.483**	0.540**		-0.073

	(0.037)	(0.031)	(0.023)		(0.047)
관측치	2,869	4,850	7,719	7,719	7,719
R2	0.039	0.069	0.058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표5>는 특성효과와 계수효과를 설명변수별로 세부적으로 보여준다. 요인 분해에 활용된 선형확률모형의 추정결과를 모형(1)-(3)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추정된 회귀계수와 앞서 <표1>에서 보고한 각 변수의 연도별 평균값을 이용하여 각 변수별 특성효과와 계수효과를 계산하게 된다.

변수별 요인분해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특성효과의 상당 부분이 초대졸 이상 고령층의 증가 및 연금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계수효과의 상당 부분이 여성의 회귀계수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함께 구직활동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다른 경로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구직경로별 요인분해

<표6>은 위의 요인분해를 각 구직경로별로 실시한 결과를 요약한다. 우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고령자인재은행 등을 통해’의 응답과 ‘기타 공공 취업알선기관을 통해’의 응답은 두 시점 사이에 각각 3.6% 포인트와 6.5% 포인트 증가하는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 중 1.4% 포인트와 2.8% 포인트가 특성효과로 추정되어 전체 변화의 39%와 43%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간 취업알선기관을 통해’의 응답 비율의 증가는 1.2% 포인트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요인분해 결과를 보면 특성효과에 의해 오히려 1.4% 포인트 감소가 초래되어야 하나 계수효과가 2.5% 포인트 증가로 감소분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고령층의 구직활동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학력수준의 향상과 함께 점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의 응답의 비율은 두 시점 사이에 2.6% 포인트 증가하고 있으며 이 변화의 46% 가량인 1.2% 포인트가 특성효과로 추정된다. 마지

막으로 ‘사업체 문의 또는 방문’의 응답은 3.3% 포인트 감소하고 있으며 특성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나고 거의 대부분 계수효과로 추정된다.

〈표6. 구직경로별 요인분해 결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기타 공공취업알 선기관	민간 취업 알선기관	신문 잡지 인터넷	사업체 문의 방문
P2024년	0.090** (0.005)	0.284** (0.007)	0.115** (0.006)	0.107** (0.006)	0.088** (0.005)
P2014년	0.054** (0.005)	0.219** (0.008)	0.103** (0.006)	0.081** (0.006)	0.120** (0.006)
변화	0.036** (0.007)	0.065** (0.011)	0.012 (0.009)	0.026** (0.008)	-0.033** (0.008)
특성효과	0.014** (0.003)	0.028** (0.006)	-0.014** (0.004)	0.012** (0.003)	-0.004 (0.003)
계수효과	0.023** (0.007)	0.036** (0.010)	0.025** (0.009)	0.014 (0.009)	-0.029** (0.009)
관측치	7,719	7,719	7,719	7,719	7,719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 V. 결론 및 토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년과 2024년의 고령층의 구직경로 선택에는 유사한 점과 함께 여러 변화들이 나타난다. 고령층 연령 분포의 변화, 학력 수준의 향상, 여성의 구직활동 증가 등과 함께 비공식적이고 전통적인 구직경로인 친구, 친지 등을 중심으로 한 사적 네트워크의 활용이 감소하며 사업체에 직접 문의하거나 접촉하는 경로에 대한 선택도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공공 취업알선기관을 통한 구직활동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한 구직활동도

증가하고 있으나 변동이 그리 크지는 않으며 그 비중도 아직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부가조사 2024년 자료를 보면 청년층의 취업경로 중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취업의 비중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up>7)</sup> 고령층의 낮은 대중매체 이용비율은 연령대에 따른 디지털 정보격차에서 비롯될 수도 있으며 고령층의 노동시장에서 공급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 등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고 일자리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을 통한 채용보다는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중심의 채용과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채용이 여전히 주요하게 작용하며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sup>8)</sup>

고령층 구직경로의 결정요인은 연령과 학력수준의 효과가 주요하게 확인된다. 두 시점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인일자리사업 등의 영향으로 생각되는 공공 취업알선기관의 활용은 증가하나 대중매체의 활용은 줄어든다.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 고령층은 특히 최근에는 사적 네트워크 보다는 고용센터, 민간 취업알선기관, 대중매체 등 다양한 경로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여성의 구직경로 선택에서 확인되는데 2024년의 분석에서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의 활용이 유의하게 높아진다. 이는 고령층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과 연계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각 구직경로별로 요인분해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연령, 학력수준 등 고령층의 특성의 변화에 의해 설명되는 특성효과에 의해 초래되는 변화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계수효과가 두 표본을 통해 추정되는 회귀계수가 차이를 보임으로써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두 시점 사이에 구직경로의 선택에 대한 고령층의 성향이나 노동시장의 환경에 여러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통계표, <https://kosis.kr> 참조.

8) 대중매체를 이용한 구직활동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확률에서 청장년층과 고령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고 여전히 선택 빈도가 높은 친구, 친지 등의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비공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요인분해에서도 계수효과의 크기가 특성효과의 두 배 정도로 추정된다.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구직활동의 감소에서 특성효과에 크게 기여하는 변수는 초대졸 이상 고학력 고령층의 증가로 파악되며 계수효과의 상당 부분은 여성의 회귀계수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서도 여성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구직활동에 있어서도 다변화되어 과거와는 다른 경로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함께 다양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도적 불균형으로 연금 등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 구직경로의 분석 결과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노인일자리사업 등의 일자리 정책의 효과가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직경로의 다변화가 고령층 구직활동의 증가와 함께 나타나며 학력 수준, 성별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차이도 존재한다. 정보화가 심화되고 고용기회도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으나 고령층의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이용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고령층 노동시장에서 민간 수요와의 마찰을 줄이고 일자리 매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강순희. (2018). 대졸 청년 노동시장 이행의 코호트 간 비교연구. *노동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 김준수, 김신열 & 이주은. (202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23권 제2호.
- 서미경 & 김미혜. (2012). 재취업 중·고령자의 구직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부가조사(2009)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8권 제1호.
- 오성욱. (2017). 대졸이후 첫 주된 일자리 취업자의 구직경로별 구직준비행동이 취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취업진로연구* 제7권 제2호.
- 오성욱. (2013). 구직경로별 대졸청년구직자의 직업선택이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제37권 제4호.
- 이병훈. (2002). 구직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5권 제1호.
- 이혜영 & 강순희. (2017). 대졸자의 구직경로가 첫 일자리 직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개인-직무 적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7호.
- 탕운, 허형조 & 이재원. (2022). 활동적 고령화 정책을 위한 두 가지 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사회과학연구* 제34권 제2호.
- 통계청. (2024).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
- Blau, D. M. & Robins, P. K. (1990). "Job Search Outcomes for the Employed and Unemploy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3):637-655.
- Bliner, A. S. (1973). "Wage Discrimination: Reduced Form and Structural Estimat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8(4):436-455.
- Greene, W. H. (1997). *Econometric Analysis*. Third Edition. Prentice Hall.
- Hamermesh, D. S. (2002). "12 Millions Salaried Workers Are Missing".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5(4):649-666.

- Holzer, H. J. (1987). "Job Search by Employed and Unemployed Youth". *ILR Review* 40(4):601-611.
- Holzer, H. J. (1988). "Search Method Use by Unemployed Youth". *Journal of Labor Economics* 6(1):1-20.
- Kuhn, P. & Mansour, H. (2014). "Is Internet Job Search Still Ineffective?". *The Economic Journal* 124(581):1213-1233.
- Kuhn, P. & Skuterud, M. (2000). "Job Search Methods: Internet Versus Traditional". *Monthly Labor Review* 123(10):3-11.
- Mortensen, D. T. & Vishwanath, T. (1994). "Personal contacts and earnings: It is who you know!". *Labour Economics* 1(2):187-201.
- Mussida, C. & Zanin, L. (2020). "Determinants of the Choice of Job Search Channels by the Unemployed Using a Multivariate Probit Mod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152:369-420.
- Oaxaca, R. (1973).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4(3):693-709.
- Oaxaca, R. L. & Ransom, M. R. (1994). "On discrimination and the decomposition of wage differentials". *Journal of Econometrics* 61(1):5-21.
- Paik, M. (2020). "Internet Job Search and Match Quality of Young Workers: Past and Present".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s(한국경제학보)* 27(2):139-174.
- Schmidt, P. & Strauss, R. P. (1975). "The Prediction of Occupation Using Multiple Logit Model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6(2):471-486.